『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과 역할 변화에 담긴 의미 연구*

- 前代 敍事 傳統의 계승과 변주의 관점에서 -

강 나 래**

1. 서론
2. 前代 敍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
3.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
4.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 변화에 담긴 의미
5. 결론

초록: 본 연구는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어떻게 계승 또는 변주시켰는지를 밝히고, 그러한 역할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보살은 고전서사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존재로, 작품에 따라 선택되는 보살의 유형과 역할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후대로 가면서 보살의 역할은 본래의 직능을 넘어서는가 하면 성격이 확장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前代 敍事에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관음과 문수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호명해 서사 전개에 적극적으로 관여시킨 『옥루몽』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前代 敍事의 傳統이 고전소설의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옥루몽』이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임에도 초월적 조력자로 보살을 호명한 이유와 작중 보살에게서 확인되는 역할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규명해보았다.

『옥루몽』에 나타나는 觀音菩薩과 文殊菩薩의 역할 차이를 정치하게 논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이전 시기의 서사 안에서 보살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검토하였다. 다만, 여기서 본고는

* 이 글은 서울대학교 2017년 2학기 서철원 선생님의 '신라와 고려의 문학' 강의 중 작성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이 자리를 빌려 논문을 읽고 조언을 해주신 분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三國遺事』가 前代 敍事 傳統으로서의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三國遺事』에는 관음, 문수, 미륵, 지장, 보현보살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각자가 가진 본래적 속성에 따라 서사 내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비록 미륵, 지장, 보현은 동일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세 보살이 지닌 공통된 속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로 보건대 『三國遺事』 속 諸菩薩은 유형에 따라 역할 범주를 형성하고 각자의 소임을 대체로 넘나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앞서 도출해낸, 전대 서사에 형상화되어 있는 보살의 유형별 역할 범주를 기준삼아 『옥루몽』에 나타난 관음과 문수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옥루몽』의 두 보살은 각자의 이름에 따른 국한된 역할만 수행하지 않고,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 다른 보살의 소임으로 분류되었던 역할을 맡는가 하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옥루몽』 속 관음과 문수는 표면적으론 다양한 역할 경계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지닌 본래적 속성과 前代 敍事의 傳統에 기초하여 외연을 변이·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인 『옥루몽』에서 보살을 작품의 핵심 조력자로 선택하고, 여기서 나아가 역할상의 변이·확장을 시도한 것은 불교에 대한 당대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대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옥루몽』 속 보살의 역할은 분별없고 소박해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역할 변화는 불교의 지위가 달라짐에 따라 서사문학 안에서 보살의 성격도 신성한 존재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설적 도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옥루몽』의 관음과 문수가 역할 경계를 무분별하게 뛰어넘는 존재가 아닌 前代 敍事의 傳統과 보살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된 캐릭터라는 사실은 『옥루몽』이 여타 소설에서와는 구별되는 조력자를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핵심어 : 보살, 觀音菩薩, 文殊菩薩, 『三國遺事』, 『옥루몽』, 역할, 리뉴얼, 소설적 도구

1. 서론

본고는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으로부터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1] 보살은 위로는 菩提를 구하고 아래로는 깨달음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존재로, 『三國遺事』나 「金牛

1) 본고에서 말하는 前代 敍事의 傳統은 조선시대 이전에 창작·향유된 고전서사에 전형화되어 나타나는 보살 캐릭터와 그 역할을 의미한다.

太子傳」, 「安樂國太子傳」과 같은 여말선초의 불전설화 및 불전계 소설에서부터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창선감의록』, 『옥루몽』, 『양풍운전』 등 조선후기 인기리에 유통·향유되던 고전소설에 이르기까지 고전서사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이들 작품 안에서 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顯現하여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작품에 따라 선택되는 보살의 유형과 역할은 단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다섯 편의 고전소설과 같이 조선시대에 창작·유통된 非불전계 소설에서도 보살이 주동인물의 조력자로 호명되어 본래의 직능을 넘어서거나 그와는 무관해 보이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보살일지라도 어떤 작품에 출현하는가에 따라 다른 역할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좁게는 개별 작품에, 넓게는 고전서사에 나타나는 보살의 성격과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이들의 존재를 '보살' 내지 '초월적 조력자'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다루는 작업뿐 아니라 보살의 유형과 역할상의 차이를 고려한, 보다 세분화된 시각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자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보살의 역할이 소설의 시대에 들어서서 유형별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후대로 가면서 보살의 역할이 본래의 직능을 넘어서는가 하면, 보살이 지닌 성격이 확장되기도 하였던 특징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시대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 가운데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나오는 작품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작품에 보살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서사 내에서 도사나 승려 등의 다른 조력자와 구분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창작·유통된 非불전계 소설 속에 주요 보조인물로 보살이 호명되는 경우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그들 작품에서 보살이 맡은 소임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하면, 이전 시기 보살에게 주어졌던 본래적 역할을 일부 계승함으로써 다른 조력자와 구별되는 지점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옥루몽』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작품에 나타난 유형별 보살의 역할이 전대 서사 안에서 형성된 보살의 역할을 어떻게 계승하고 변주시켰는지를 규명하고, 그러한 역할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고찰하려고 한다.『옥루몽』에는 觀音菩薩과 文殊菩薩이 주요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이들은 보살이란 동일한 범주에 속해 있지만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서사 전개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이는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단 한 명의 보살이 호명되며, 그마저도 觀音菩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차이를 지닌다.[2] 이렇듯 이 작품에 여타 고전소설과는 변별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前代 敍事 傳統으로서의 보살의 역할이 고전소설의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에『옥루몽』이 적절한 대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연구대상을『옥루몽』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때 작품에 나타나는 유형별 보살의 역할 차이를 정치하게 논하기 위하여 이전 시기의 서사 안에서 보살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예정이다.[3] 이를 통하여『옥루몽』에 등장하는 관음과 문수보살을 입체적으로 파

---

2) 단적으로 앞서『옥루몽』과 함께 언급하였던『사씨남정기』,『소현성록』,『창선감의록』,『양풍운전』은 보살을 주동인물의 조력자로 호명한 조선후기 고전소설 중 하나이지만 이 가운데 둘 이상의 보살을 등장시킨 작품은 확인되지 않는다.『양풍운전』을 제외한 세 편의 작품은 관음을 조력자로 선택하였는데, 작품 안에서 관음의 등장은 단편적이며, 그가 수행하는 역할 역시 단순한 편이다. 이런 까닭에 보살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초월적 존재 내지 도사가 주동인물의 또 다른 조력자로 작품에 출현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옥루몽』의 경우, 후술하겠지만, 관음과 문수가 주동인물을 돕는 중심 조력자로 활약할 뿐 아니라 서사 내에서의 소임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에 창작·유통된 非불전계 소설에서 유형에 따른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 傳統으로부터 얼마만큼 달라졌고,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논의함에 있어『옥루몽』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는『사씨남정기』,『소현성록』,『창선감의록』,『양풍운전』을 전부 연구대상으로 삼기보단『옥루몽』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이들 작품을 다루고자 한다.

3) 2장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밝히겠지만, 본고는 前代 敍事의 傳統을 규명함에 있어 여말선초에 창작·향유되었던 다양한 불전설화 및 불전계 소설을 모두 포괄하여 검토하지 않고『三國遺事』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前代 敍事의 傳統을『三國遺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유형별 역할만으로 일반화시키는 일은 다소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三國遺事』가 보살이 등장하는 거의 초기 서사물로, 여말선초의 불전계 서사물 중 그 어떤 것보다 분명하게 불교에 깊이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三國遺事』에 구현

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보살이 고전서사에서 하나의 독특한 캐릭터로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나갔는지가 드러나리라 기대된다.[4)]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옥루몽』의 보살 관련 선행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행연구 가운데 『옥루몽』에 관음과 문수보살이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여 서사 내부에서 두 보살이 지닌 역할상의 특징을 지적한 연구로는 최종운과 이명현의 논문이 존재한다.[5)] 먼저 최종운은 도교 사상

되어 있는 보살의 성격과 역할이 당대 유통되었던 불경 속 보살의 본래적 성격 및 역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곧 『三國遺事』의 보살을 통하여 불교 경전 속 보살의 기본적 성격과 역할의 전형화된 형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이런 이유에서 본고는 『三國遺事』에 구현되어 있는 보살의 성격과 유형별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의 기본적이고도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다종의 서사물을 살펴 前代 敍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시도하기보다 불경의 본래적 형태에 근접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三國遺事』의 보살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다. 다만 이와 같은 논의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三國遺事』의 유형별 보살의 역할이 실제 불경 속 보살의 소임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정된 분량 안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장이나 절을 할애하여 불경에 나타나는 보살의 역할을 다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三國遺事』의 유형별 보살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三國遺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이 불경 속 보살의 본래적 성격 또는 소임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4) 본고는 고전서사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 변화를 살피기 위한 일종의 시론적 연구이다. 고전서사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 변화에 관한 논의가 아직 시작 단계에 놓여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선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변화시켰는지를 살펴 변화상의 일단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옥루몽』은 조선시대에 창작·향유된 여타 非불전계 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서사 내에서 보살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적극적이고,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옥루몽』의 보살이 맡은 소임은 조선시대의 非불전계 소설 속 보살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표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옥루몽』에 구현되어 있는 보살의 역할이 단편적이지 않고, 비교적 풍부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보살의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옥루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비록 『옥루몽』을 연구의 중심축으로 삼았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에 창작 및 향유된 또 다른 非불전계 소설에서 보살의 역할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나가다 보면 고전서사 내에서 보살에게 주어진 역할의 변화상과 인식의 편폭을 통시적으로 재구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의 배경 안에서 『옥루몽』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관음과 문수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道佛이 습합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는 『옥루몽』 속 두 보살이 지닌 특징적 면모를 정확하게 집어냈으나 연구 시각이 도교적 측면에 경도되어 관음과 문수를 불교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본질은 도교에 있는 존재로 해석하는가 하면, 두 보살의 인물 형상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선후기 민간에서 유행한 보살신앙만 들고 있어 논의가 단선적이고 과도한 면이 있다. 다음으로 이명현은 『옥루몽』이 대중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아래 다른 유형의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초월적 존재의 현실 개입'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 관음은 이전 시기 한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도사와 같이 양창곡의 수학과정에서 간접적 조력자로 기능한 반면 문수는 강남홍의 스승으로 등장해 영웅소설에 나올법한 전형적인 도사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하였다.[6] 그는 작품에서 관음과 문수가 지닌 조력자로서의 성격 차이는 명확하게 밝혀냈지만 이들이 보살이라는 본래적 성격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상의 차이까지 고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옥루몽』의 두 보살이 이전 시기에 향유되던 고전서사 속 보살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였으며, 유형별 역할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등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관음과 문수가 작품에서 보살로 호명된 만큼 초월적 조력자의 차원을 넘어 불교적 존재 측면에서 이들이 지닌 역할을 세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두 보살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옥루몽』에 등장하는 보살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前代 敍事 傳統의 계승과 변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옥루몽』이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임에도 초월적 조력자로 보살을 굳이 호명한 이유와 작중 보살에게서 확인되는 역할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소설의 시대에 보살

---

5) 최종운, 1995 「『옥루몽』에 나타난 도교사상」,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현, 2013 「『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의 성격과 대중성」, 『어문론집』 53권, 중앙어문학회.

6) 이명현, 위의 논문, 270면.

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으로부터 얼마만큼 달라지게 되었는지 변화의 편폭을 일부분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2. 前代 敍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

이 장에서는 『옥루몽』에 나타나는 觀音菩薩과 文殊菩薩이 작품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전 시기에 창작·향유되던 고전서사에서 보살의 역할이 유형별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본고는 前代 敍事의 傳統을 보여주는 서사물로 『三國遺事』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전 시기의 서사 안에서 형성된 보살의 유형별 역할을 정확하게 도출해내기 위해선 여말선초에 창작·유통되었던 불전설화 및 불전계 소설을 전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살화현 설화를 별도로 추려낼 수 있을 만큼 『三國遺事』에 보살이 등장하는 설화가 상당수 존재하며,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나타난다는 점, 보살이 출현하는 고전서사 가운데 『三國遺事』가 시기상 거의 처음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의 자장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유형별 보살의 역할을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三國遺事』를 前代 敍事의 傳統을 대표하는 서사물로 보려고 한다.

전술하였듯, 『三國遺事』에는 보살이 아름다운 여인, 노승, 볼품없는 거사, 여종 등 본래와는 다른 존재로 모습을 바꾸거나 眞身의 형상으로 서사에 등장하는 설화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들 보살화현 설화에서 보살이 다양한 모습으로 화현할 수 있었던 것은 『三國遺事』가 多佛 多菩薩을 인정하는 대승불교의 三身觀(法身·報身·化身)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보살이 유형별로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서 확인되는 보살의 유형과 현신 양상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표 1〉『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 등장하는 보살의 유형과 현신 양상[7)]

번호	제목	출전	등장하는 보살	현신 양상
1	皇龍寺丈六	塔像	문수보살	眞身
2	皇龍寺九層塔		문수보살	眞身
3	三所觀音 衆生寺		관음보살	보이지 않는 존재, 眞身, 승려
4	栢栗寺		관음보살	보이지 않는 존재, 용모가 단정한 승려
5	敏藏寺		관음보살	보이지 않는 존재, 이상한 승려
6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미륵보살	승려, 小郎
7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관음보살	아름다운 낭자
8	芬皇寺 千手大悲 盲兒得眼		천수관음	보이지 않는 존재
9	落山 二大聖 觀音正趣 調信		관음보살	眞身, 벼 베는 여인, 月水帛 빠는 여인, 보이지 않는 존재
10	五臺山五萬眞身		문수보살	老僧
11	臺山 月精寺 五類聖衆		관음보살	老嫗, 학, 다섯 비구
12	慈藏定律	義解	천부관음	보이지 않는 존재
			문수보살	小像, 신이한 승려, 늙은 거사
13	眞表傳簡		지장보살	眞身
			미륵보살	眞身

7) 『三國遺事』에서 보살이 나타나는 설화는 총 22편이다. 그러나 본고는 보살이 단순히 사찰 설립의 매개로 제시된 설화(「生義寺石彌勒」-미륵)와 서사 내부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설화(「溟州五臺山 寶叱徒 太子傳記」-관음 · 팔대 · 지장 · 대세지 · 문수, 「心地繼祖」-지장, 「月明寺兜率歌」-미륵)는 제외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三國遺事』에 나타난 유형별 보살의 역할을 검토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前代 敍事 傳統으로서 보살의 소임이 유형별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었는가에 있는 만큼, 보살의 역할이 서사 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살의 행동이 주요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설화만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편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리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표 1〉에 제시한 18편의 설화만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덧붙여 「落山 二大聖 觀音正趣 調信」은 서사에 정취와 관음이 등장하지만, 정취의 경우 「生義寺石彌勒」과 마찬가지로 사찰 창건을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논의에서 뺄 것이다. 또 「落山 二大聖 觀音正趣 調信」條 중, 관음을 친견한 의상의 이야기는 사찰 설립에 관한 것이고, 「五臺山五萬眞身」條 가운데 보천과 효명태자가 관음, 팔대, 지장, 대세지를 만난 이야기는 서사에서 보살의 역할이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다루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제외할 예정이다.

14	關東楓岳 鉢淵藪 石記		지장보살	眞身
			미륵보살	眞身
15	廣德 嚴莊	感通	관음보살	분황사 여종
16	憬興遇聖		관음보살	비구
			문수보살	볼품없어 보이는 거사
17	朗智乘雲普賢樹	避隱	보현보살	이상한 사람
18	緣會逃名文殊岾		문수보살	밭가는 노인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는 관음, 문수, 미륵, 지장, 보현 등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등장한다. 그 가운데 관음과 문수의 경우 각각 10편, 6편의 설화에 출현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 보살에 비해 미륵, 지장, 보현은 설화에 나오는 횟수가 적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서사 내에서 관음, 문수와는 변별되는 역할을 가진다. 이는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여러 유형의 보살이 각기 나름의 정해진 역할을 맡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관음에게는 관음의 역할이, 문수에게는 문수 나름의 역할이 있어서 서로의 사이에 넘나듦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 속 보살의 유형별 역할 차이는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을까.[8]

8)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바, 2장에서는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를 통하여 前代 敍事의 傳統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이때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서 출현 비중이 높은 보살을 중심으로 유형별로 역할을 나누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三國遺事』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세밀하게 살펴보는 일은, 본고가 연구의 초점을 『옥루몽』에 두고 있으며, 해당 작품에 등장하는 보살이 관음과 문수뿐임을 고려하면 자칫 논의를 번다해 보이게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옥루몽』에서 관음과 문수가 수행하는 역할이 『三國遺事』, 나아가 불경에서 확인되는 보살의 유형별 역할 및 직능을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넘나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정치한 논의를 위해선 『三國遺事』 속 보살의 역할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본고의 일차적 목표가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어떤 지점에서 계승하고 변주시킨 것인지를 밝히는 데 있음을 상기하면, 본고에서 前代 敍事의 傳統을 대표하는 서사물로 파악한 『三國遺事』에서 보살의 역할이 유형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2장에서 약간은 불필요해 보이더라도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 등장하는 보살의 역할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1) 觀音菩薩

觀音菩薩은 중생이 내는 온갖 고뇌의 소리를 듣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괴로움으로부터 일체중생을 구하는 大慈大悲한 존재이자 그들이 미혹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이런 까닭에 관음은 중생 제도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 중생의 앞에 나타난다. 『妙法蓮華經』의 「觀世音菩薩普門品」에 따르면, 관음의 주된 역할은 중생이 처한, 혹은 앞으로 처하게 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다.[9] 『三國遺事』 속 관음의 주된 역할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三國遺事』에서 관음이 수행하는 역할은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구원자, 보호자, 경제적 지원자, 깨달음으로의 인도자가 그것이다. 다음의 「三所觀音 衆生寺」에는 구원자, 보호자, 경제적 지원자로서의 관음이 형상화되어 있다.[10]

---

9)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케 하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그가 혹시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며, 혹은 큰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며, … 또 어떤 사람이 만일 해를 입게 되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이나 막대기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 능히 벗어날 수 있으며, …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게 되고, 만일 딸 낳기를 원한다면 곧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딸을 낳게 되리니, 덕의 근본을 잘 심었으므로 여러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이운허 옮김, 2005 『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356-357면.)

10) 추후 3장에서 다룰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이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것이 前代 敍事 傳統을 얼마만큼 계승 또는 변개시켰는지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선, 전술하였듯 『三國遺事』에 나타나는 보살의 유형별 역할을 세밀하게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三國遺事』의 관음의 경우, 서사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이 유사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하나로 묶어 다루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피해·결핍 상황의 발생 여부와 위험의 종류를 중심으로 관음의 역할을 위와 같이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그 차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구원자: 자연적 재해를 입거나 사회적 결핍(후사 문제) 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함. ②보호자: 전란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위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중생을 보호함.(보호자로서의 관음은 피해·결핍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①신라 말기 천성(天成, 926~929) 연간에 정보(正甫) 최은함(崔殷誡)은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으므로 이 절의 관음보살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석 달이 못 되어 백제의 견훤(甄萱, 재위 900~935)이 서울을 습격하여 범하니, 성안이 크게 혼란하였다. 은함은 아이를 안고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이웃 나라 군사가 졸지에 닥치니 일이 급박한지라 어린 자식이 짐이 되어 둘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사오니, ②진실로 대성(大聖, 관음보살)께서 아기를 주셨다면 큰 자비의 힘으로 보호하고 길러 주시어 우리 부자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려 슬피 한탄하고, 세 번 울고 세 번 고하였다. 아이를 강보에 싸서 (관음보살) 사자좌 밑에 감추어 두고 돌아보면서 떠났다. 반달이 지나 적병이 물러간 후 와서 아이를 찾아보니 살결은 새로 목욕한 것과 같으며, 모습이 어여쁘고 젖냄새가 아직도 입에 남아 있었다.[11]

①을 보건대 최은함은 늦도록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인식한 듯하다. 그러나 최은함의 걱정거리는 관음에게 기도를 올려 아들을 얻음으로써 해소된다. 사건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최승로의 탄생은 최은함의 간절한 호명에 대한 관음의 응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관음은 최은함에게 아들을 점지해줌으로써 그를 고통에서 구원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12]

는 점에서 구원자로서의 관음과 차이를 지닌다.) ③경제적 지원자: 경제적 파탄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생을 지원함. ④깨달음으로 인도자: 보살이 중생을 열반에 도달하는가, 아닌가와 관련된 정신적 위기 상황에 밀어 넣고, 그를 마침내 깨달음으로 인도함.(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관음의 다양한 역할은 결국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서사 내에서는 중생을 구원, 보호, 지원하는 것이 곧바로 깨달음으로의 인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11) 본고는『三國遺事』를 인용함에 있어 현대어역은 일연, 최광식·박대제 역주, 2014『삼국유사 2』, 고려대학교 출판부를, 원문은 일연, 신태영 옮김, 2012『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를 활용하였다. 일연, 최광식·박대제 역주, 앞의 책, 165면. "羅季天成中, 正甫崔殷誡, 久無胤息, 詣玆寺大慈前祈禱, 有娠而生男. 未盈三朔, 百濟甄萱, 襲犯京師, 城中大潰. 殷誡抱兒來告曰: 隣兵奄至, 事急矣. 赤子累重, 不能俱免, 若誠大聖之所賜, 願借大慈之力, 覆養之, 令我父子再得相見. 涕泣悲惋, 三泣而三告之, 褁以襁褓, 藏諸猊座下, 眷眷而去. 經半月寇退, 來尋之, 肌膚如新浴, 貌體嬛好, 乳香尙痕於口."(일연, 신태영 옮김, 앞의 책, 325면.)

12)『三國遺事』속 관음의 구원자적 역할은 無後 상태의 중생에게 자손을 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栢栗寺」에 등장하는 부례랑의 부모나「敏藏寺」의 보개와 같이 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중생에게는 위기에 처한 그들의 자식을 구하여 집으로 보내주고,「芬皇寺

이어지는 최은함의 이야기에는 ②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관음의 또 다른 역할이 발견된다. ②에서 최은함은 후백제가 신라를 침략해 사세가 급박해지자 생존을 위하여 아들을 관음상 사자좌 아래 두고 떠난다. 이때 그는 관음에게 아들을 돌보아주기를 간청하는데, 보름 후 돌아와 마주한 아이의 모습은 어른의 보살핌으로부터 방치되어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온전한 상태이다. 아이에게서 확인되는 완연한 양육의 흔적은 관음이 아이를 기본 욕구가 결핍되는 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전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하자면 관음이 구원자의 역할뿐 아니라 중생을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보호자로서 기능하기도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가하면 최은함의 이야기와 더불어 「三所觀音 衆生寺」에 수록되어 있는 성태 스님 관련 이야기에서는 관음의 경제적 지원자의 면모가 드러난다. 절의 주지인 성태는 가난으로 인해 향사를 올리기 힘들어지자 절을 떠날 결심을 하고 관음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그날 성태의 꿈에 관음이 나타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주 지방 사람들이 낙산사에서 온 시주승으로부터 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르렀다며 쌀 여섯 섬과 소금 넉 섬을 시주한다. 금주 지방 사람들이 만난 시주승의 정체는 그들이 법당 안 관음상의 모습이 시주승과 다름없음을 이야기함으로써 밝혀진다. 성태 스님의 이야기는 관음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뇌하는 중생에게 현몽하여 미래를 약속하고, 다른 중생 앞에 화현해 절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직접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부터 『三國遺事』의 관음이 때로는 경제적 지원자의 역할을 해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南白月二聖 努肹夫得 怛怛朴朴」, 「落山 二大聖 觀音正趣 調信」, 「廣德 嚴莊」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관음은 특정 인물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이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도록 이끄는 인도자로 등장하기도 한다.[13] 다만, 이때의 깨

千手大悲 盲兒得眼」에 나오는 희명의 아이처럼 신체적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비는 중생에게는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등의 구제 행위까지 포괄한다.

13) 전술하였듯 본고는 「落山 二大聖 觀音正趣 調信」條에 실린 이야기 가운데 원효 관련 이

달음은 큰 菩提를 이뤄 열반에 들거나 서방정토로 향하는, 거대한 수준의 깨달음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臺山 月精寺 五類聖衆」에서처럼 불법을 수행하는 자가 관음의 도움으로 수련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되는 비교적 작은 수준의 것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선 관음이 중생에게 바른길을 敎示하는 길잡이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三國遺事』에서 관음의 역할은 「觀世音菩薩普門品」에 제시된 관음의 직능에 부합하며 이는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2) 文殊菩薩

文殊菩薩은 지혜를 완전히 갖춘 보살로 釋迦牟尼佛을 도와 중생을 교화하는 존재이면서 『佛說文殊師利般涅槃經』에 나온 것처럼 신통력을 보이는 존재이다.[14] 여

야기와 조신 관련 이야기만 논의에 포함시켰는데, 그중 관음이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존재로 그려진 것은 조신 관련 이야기뿐이다. 원효 앞에 여인으로 화현한 관음은 길잡이의 모습보단, 후술할 문수가 지닌 시험자의 면모에 좀 더 밀착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관음은 원효가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자 더러운 물을 줘 그를 시험에 들게 한다. 불법을 닦는 존재 앞에 나타나 그가 깨달음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해 본다는 점에서 여기서의 관음은 깨달음의 인도자적 소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효가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醍醐를 마다한 和尙'이라는 꾸짖음을 받고 끝내는 관음의 眞容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돼, 서사에서 관음이 원효를 실제 깨달음으로 인도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원효 이야기의 관음은 깨달음의 인도자란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원효 이야기를 제외하면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 가운데 관음이 시험자로 등장하는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14) 김용덕, 2011 「문수보살 신앙과 영험설화의 전승양상」, 『한국민속학』 54, 한국민속학회, 73-74면. 문수는 태어날 때부터 신이한 이적과 영험을 보인 존재로, 諸佛菩薩의 智母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선의 도술에 비견할만한 신통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는 아래의 『佛說文殊師利般涅槃經』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원문은 불교학술원 아카이브에서 인용하였다. 『佛說文殊師利般涅槃經』 "其生之時, 家內屋宅化如蓮華, 從母右脅出, 身紫金色, 墮地能語. … 與諸神仙作比丘像, 飛騰空中, 至本生地, 於空野澤尼拘樓陁樹下, 結加趺坐, 入首楞嚴三昧, 三昧力故, 身諸毛孔出金色光, 其光遍照十方世界度有緣者, 五百仙人,

기서 지혜란 이분법적인 대립을 초월하여 주객의 분별과 극단적 사유를 지양함으로써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三國遺事』에서 문수가 부여받은 역할은 지식 전수자와 시험관으로 요약되는데, 이 역시 文殊菩薩이 본래 지닌 지혜와 중생 교화의 속성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三國遺事』의 「慈藏定律」에는 문수보살이 수행하는 두 가지 역할이 모두 선명하게 그려진다.

> 자장이 소상의 앞에서 기도하여 그윽이 감응을 받으니, 꿈에 소상이 정수리를 쓰다듬고 범게(梵偈, 범어로 된 게송)를 주었다. 깨어나도 뜻을 알지 못하였는데, 아침이 되자 신이한 스님이 와서 풀이해 주고[이미 황룡사탑편에 나왔다] 또 말하기를, "비록 만 가지의 가르침을 배우더라도 아직 이(범게)를 뛰어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또한 가사와 사리 등을 주고 사라졌다.[15]

문수는 자장의 간절한 기도에 감응하여 그의 꿈에 청량산 만수대성 소상의 모습으로 나와 梵語로 된 偈를 건네준다. 그러나 자장은 梵偈의 뜻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에 문수는 異僧으로 화현하여 게의 의미를 알려준다. 자장이 문수에게 받은 梵偈는 만 가지 가르침보다 낫다고 평가된다는 점에서 불교 지식의 정수를 담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문수가 자장의 앞에 현신해 梵偈를 주고, 다시금 등장해 그 의미를 풀이해주는 일련의 과정은 일종의 지식 전수 과정으로 해석되며, 이때의 문수는 지식 전수자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慈藏定律」 후반부에 이르면 문수의 역할은 시험관으로 변모한다. 문수는 평안한 만년을 보내고 있던 자장의 앞에 남루한 형상을 한 늙은 거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장이 아상과 분별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였는지를 시험한다. 자장은 거사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를 광인으로 취급해 쫓아냄으로써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자장의 뉘우침이 깨달음의 경지에

各皆見火從身毛孔出."

15) 일연, 최광식 · 박대제 역주, 앞의 책, 431면. "藏於像前, 禱祈冥感, 夢像摩頂授梵偈. 覺而未解, 及旦有異僧來釋云[已出皇龍塔篇], 又曰: 雖學萬敎, 未有過此. 又以袈裟舍利等付之而滅[藏公初匿之, 故唐僧傳不載]."(일연, 신태영 옮김, 앞의 책, 449면.)

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의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방점을 둔 관음과 달리 문수의 경우 중생이 아상과 분별심을 버렸는지 시험하고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생을 시험에 들게 하는 목적 역시 분별심을 꾸짖고 경계하는 것 자체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慈藏定律」 이외의 설화에서도 문수의 역할은 지식 전수자와 시험과의 역할로 수렴되는데, 이로 미루어 보건대『三國遺事』의 문수는 관음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역할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16]

3) 彌勒菩薩과 地藏菩薩[17]

彌勒菩薩은 釋迦牟尼가 入滅한 이후 인간 세계에 출현하여 釋迦牟尼佛이 구제하지 못했던 중생을 남김없이 구원하는 보살이다. 반면 地藏菩薩은 釋迦如來의 부촉으로 선정에 들어가 중생의 근기를 살피는 존재이자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6도를 윤회하며 방황하는 중생을 구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주는 보살이다. 이를 보았을 때, 미륵과 지장은 서로 다른 특성과 직능을 가진 존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두 보살은 근기를 지닌 중생뿐 아니라 구제의 혜택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중생에게도 관심을 두고,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성숙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상통하는 면이 존재한다.[18]『三國遺事』에서

---

16)「五臺山五萬眞身」條의 문수는 때로 보천의 이마에 물을 붓고 성도 기별을 했다는 점에서 지식의 전수자나 시험관과는 변별되는 예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記別이 부처가 수행자에게 성불 시기, 수명, 국토, 불명 등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는 행위'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선 지식 전수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7)『三國遺事』에서 미륵과 지장은 역할상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륵과 지장을 묶어서 다루고자 한다.

18) 미륵과 지장이 중생의 수행을 돕고, 그들을 성숙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임은『彌勒菩薩所問本願經』,『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大乘大集地藏十輪經』에서 확인된다. 원문은 불교학술원 아카이브를 참고하였다. ①미륵보살:『彌勒菩薩所問本願經』"我悔一切過, 勸助衆道德, 歸命禮諸佛, 令得無上慧. … 彌勒菩薩求道本願, 使其作佛時, 令我國中人民無有諸垢瑕穢, 於婬, 怒, 癡不大, 慇懃奉行十善, 我爾乃取無上正覺.",『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若有敬禮彌勒者, 除卻百億劫生死之罪, 設不生天, 未來世中龍花菩提樹下亦

미륵과 지장의 역할은 바로 이 유사성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서사 내에서 둘의 역할은 크게 구별되지 않고 중생의 수행을 장려 또는 완성시키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만,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미륵과 지장이 중생의 수행을 장려하거나 완성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물이 될 물건을 건네는 모습이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를 제외한, 미륵과 지장이 등장하는 모든 설화에서 포착된다는 사실이다.[19] 이는 미륵과 지장이 서사 내에서 중생의 수행을 북돋고 성숙시키며, 때론 열반에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 한편 수행자를 보조해줄 '매개의 제공자'란 소임을 부여받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서 살핀 관음이나 문수의 역할과는 변별된다.[20]

두 보살의 이러한 역할은 「眞表傳簡」을 통하여 선명하게 확인된다. 진표는 혹독

得値遇, 發無上心." ②지장보살: 『大乘大集地藏十輪經』 "由此願力, 爲欲成熟諸有情故, 常普任持一切大地, 常普任持一切種子, 常普令彼一切有情隨意受用. … 現作如是等, 無量, 無數異類之身, 爲諸有情如應說法, 隨其所應安置三乘不退轉位. … 能解諸衆生, 一切煩惱縛, 至健行定等, 諸定之彼岸. … 衆生五趣身, 諸苦所逼切, 歸敬地藏者, 有苦悉皆除."

19)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는 미륵이 등장하는 설화이지만 발원자의 수행을 진작시켜줄 매개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三國遺事』에 수록된 다른 미륵 화현 설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설화에 나오는 미시랑은 진자가 미륵에게 발원한 후 꿈에 계시를 받아 만난 인물로, 미륵이 보낸 대리적 존재 내지 화신으로 이해된다. 만약 미시랑을 미륵의 대리자로 본다면 미시랑은, 물건에서 사람으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발원자의 수행을 장려 및 완성시키기 위해 미륵이 보낸 매개적 존재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겼던 과거 신라인들의 일반적 믿음과 서사 뒷부분에 수록된 說者의 해석으로 미루어 보건대, 미시랑은 미륵의 화신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매개적 존재는 발견되지 않지만 진자가 미륵의 화신인 미시랑의 덕화를 접하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정성껏 도를 닦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해당 설화에서 미륵의 소임은 『三國遺事』에서 미륵이 수행하는 일차적 역할(발원자의 수행을 독려 · 완성)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20) 『三國遺事』에서 보현이 등장하는 설화는 「朗智乘雲普賢樹」뿐이다. 보현이 나오는 설화의 수가 단 한 편에 불과한 만큼 본고는 『三國遺事』에서의 출현 빈도가 높은 보살을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보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나 「朗智乘雲普賢樹」에서 지통이 보현이 건넨 계품으로 인하여 마음이 넓어지고 진실한 지혜가 열리는 경험을 한 점으로 보건대, 보현도 미륵이나 지장과 마찬가지로 계품이란 매개를 통하여 중생의 수행을 완숙케 해 그를 깨우침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보현이 『三國遺事』에서 미륵, 지장과 같은 소임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닌 '실천행을 강조하는 보살'이라는 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한 수행을 통해 지장과 미륵을 만나 정계와 증과의 간자, 그리고 『占察經』 두 권을 받는다. 진표가 두 보살에게서 받은 물건들은 수행자로 하여금 인과응보를 깨달아 참회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수행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미륵이 진표에게 증과의 간자와 『占察經』을 주면서 이것들을 사용해 다른 중생을 구하라고 당부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두 보살이 준 물건은 진표 본인에게도 열반을 도와줄 매개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정계와 간자, 『占察經』은 진표가 불법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게 하는 매개물로, 그를 전해준 미륵과 지장은 매개를 제공해 중생의 수행을 독려하고 완성시키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三國遺事』에 나오는 諸菩薩은 각자가 가진 본래적 성격에 따라 서사 내에서 다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음과 문수는 다른 보살이 대체할 수 없는 뚜렷한 역할 범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미륵, 지장, 보현은 역할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요컨대, 前代 敍事의 傳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三國遺事』 속 諸菩薩은 유형에 따라 분명한 역할 범주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정해져 있는 소임을 대체로 분별없이 넘나들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3. 『옥루몽』에 형상화된 보살의 역할

3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옥루몽』에 나타나는 관음과 문수 보살이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얼마만큼 계승 및 변주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옥루몽』은 前代 敍事에서도 주목도가 높았던 두 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호명하여 주동인물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가 삶을 시작할 때뿐 아니라 그들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마다 사건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그려 서사 내에서 보살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이다.[21] 그러므로 『옥루몽』에서 관음과 문수는 보조인물에 불과하지만 서사 내에

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 안에서 두 보살의 역할은 前代 敍事의 傳統을 따라 유형별로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었을까.

1) 觀音菩薩

『옥루몽』의 관음은 『三國遺事』에서 관음이 수행하였던 역할을 일부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작품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관음의 역할은 주동인물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관음은 오욕칠정을 제어하지 못해 시방세계에 핀 옥련화를 희롱하는 데 쓴 선관들을 지상계로 보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운 실질적 설계자이다. 그러나 작중 관음의 소임은 연꽃과 명주로 한 차례 인연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강한 주동인물들의 꿈에 나투어 그들을 깨달음으로 손수 인도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날 밤 강남홍이 취하여 취봉루로 달아가 옷도 벗지 못하고 책상에 기대서 깜빡 잠이 들었다. … 그녀가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웬 보살 한 분이 푸른 눈썹에 옥 같은 얼굴을 하고 몸에는 비단가사를 걸치고 석장(錫杖)을 짚고 있다가 웃으며 맞이하였다. … 보살이 갑자기 서쪽을 향해 합장을 하면서 시 한 구절을 노래하였다.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有情生緣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네.	有緣生情
정이 다하면 인연이 끊어져서	情盡緣斷
온갖 사념 모두 텅비네.	萬念俱空

강남홍은 이 시를 듣고 나자 정신이 상쾌해지면서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

"나는 본래 천상의 별자리를 맡은 신선인데, 문창성과의 인연을 맺어서 인간 세계로 잠시 귀양을 간 것이로구나."[22]

21)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창선감의록』에는 관음이 『양풍운전』에는 천황보살이 등장하는데, 『양풍운전』의 천황보살은 새롭게 창조된 캐릭터로 추정된다.

22) 『옥루몽』 현대어역은 남영로, 김풍기 역주, 2006 『옥루몽』, 그린비를 인용하였다. 남영로, 김풍기 역주, 위의 책, 256-258면.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관음은 적강 후 천상선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채 살아가는 강남홍과 주동인물들의 꿈에 현신해 그들이 맺은 천계에서의 인연과 지상행의 이유를 넌지시 알려주어 지상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깨우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과관계를 깨닫게 만든다는 말은 종교적 측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옥루몽』에서 관음이 주동인물들에게 그들이 망각하고 있던 천상계의 인연을 일깨워준 것은 지상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주동인물들의 운수에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지 그들을 종교적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노정은 아니기 때문이다. 『옥루몽』의 관음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모는 『옥루몽』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단순히 계승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것은 『옥루몽』의 관음에게서 발견되는 깨달음으로의 인도자적 역할의 변화가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인 『소현성록』에서도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소현성록』에서 관음은 소씨 가문 여성들의 앞에 운수동 여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소운명과 諸夫人이 천상계에서 맺은 인연과 그들의 정체를 설명해줌으로써 지상계에서 벌어진 사건과 개개인의 운수에 인과적 필연성을 제시한다.[23] 『옥루몽』과 『소현성록』의 관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할상의 특징은 소설의 시대에 이르러 관음의 역할에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는 『옥루몽』을 포함한 조선후기에 창작·유통된 고전소설이 관음보살의 역할에 있어서 행동의 지향점에 변개를 가함으로써 前代 敍事의 傳統을 단순히 계승하기만 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옥루몽』의 관음은 前代 敍事의 傳統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서사 초반부에 제시되는 관음의 구원자적 소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늦도록 자식을 보지 못한 처사 양현과 부인 허씨는 신이한 석벽에 조각되어 있는 관음상 앞에 나아가 祈子致誠을 올린다. 그날 허씨는 옥련봉에서 내려온 보살에게 연꽃 한 송이를 하사받는 꿈을 꾸고 양창곡을 낳는다. 사건의 선후 관계

23) 『소현성록』에서 한 가지 더 주목되는 점은 소운명의 둘째 부인 이씨가 남해 용왕의 딸이자 관음을 모시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녀가 단명하게 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관음이 사람의 수명을 적어두는 유리병을 지킬 존재가 없는 것을 근심하기 때문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최수연, 허순우, 정선희, 조혜란 역주, 2010 『소현성록 4』, 소명출판의 63-68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를 고려하였을 때, 양현 부부가 後嗣를 보게 된 것은 이들의 간절한 발원에 대한 관음의 응답으로 이해된다. 이 장면에서 묘사되는 관음의 역할은 『三國遺事』에 나오는 전형적인 구원자의 소임이다. 다만, 『옥루몽』의 관음이 긴 서사 안에서 주동인물들의 삶에 여러 차례 관여하고 있는 만큼, 작품 속에서의 역할 역시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띤다. 양현의 꿈에 문창성이 나와 '貴門에 아직 다하지 못한 인연이 있어서 의탁하려고 왔'[24]다고 말한 점,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관음이 남천문에 올라 연꽃과 명주를 던지자 명주가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문창성이 양현의 아들로 태어난 일은 그가 인세에서 깨달음을 얻고 천계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계획되어 있던 일 중 하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원자의 역할만 놓고 본다면, 그 자체로는 前代 敍事의 傳統을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두 경우와 달리 『옥루몽』의 관음은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 관음의 소임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역할을 맡기도 한다. 이는 양창곡이 벽성선을 보러가던 중 힘이 다하여 바위에서 졸다가 꿈에서 관음을 만나 무곡성의 병서를 받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관음이 건넨 병서는 天文地理를 깨치고 군대를 부리며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비결을 담은 책으로 양창곡을 앎의 세계로 인도한다. 관음이 양창곡을 앎으로 이끌었다는 사실만 보면 이때의 관음의 역할은 주동인물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소임과 동궤의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관음은 옥황상제의 뜻을 받들어 병서를 전달하였을 뿐이며 양창곡이 앎의 단계로 나아가는 데 실질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관음의 역할은 주동인물인 양창곡에게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깨달음에 도달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물건을 전달함으로써 앎의 완성을 돕고 수행을 장려하는 것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당하다. 이와 같은 관음의 역할은 前代 敍事에서는 미륵, 지장, 보현이 맡았던 소임으로 보살의 유형별 역할 구분이 『옥루몽』에 이르러선 크게 흐려졌음을 시사한다.

『옥루몽』의 관음이 前代 敍事의 傳統에 약간의 변개를 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24) 남영로, 김풍기 역주, 앞의 책, 32면.

보살의 유형별 역할 경계를 흐리며 역할상의 확장을 꾀하였음은 작중 관음에게 부여된 마지막 역할인 치료자적 소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황소저의 모친, 위부인은 딸의 투기를 꾸짖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다 추자동으로 쫓겨난다. 위부인은 유배를 가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 그러자 꿈에 모친이 白衣 차림의 노인을 데려와 딸의 본성을 개조시킨다. 노인의 정체는 서사 내에서 끝내 밝혀지지 않지만 白衣를 입었다는 점, 감로수가 든 호로병을 가졌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관음의 화현으로 추정된다.[25] 관음으로 보이는 백의 노인은 위부인에게 단약 한 알을 삼키게 하여 그녀가 뱉어낸 오장을 감로수로 씻어 배에 다시 넣어주고, 피부를 갈라 뼈마디를 깎음으로써 골수까지 스며있던 악독한 기운을 제거한다. 이러한 치료 과정을 거친 위부인은 마침내 회과한다. 위부인에게 행해진 치료법은 물리적 방법을 활용해 惡을 善으로 바꾸는 수술로, 前代 敍事에서 관음이 신력을 발휘해 발원자의 신체적 결함을 없애주는 방식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사특한 본성을 정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백의 노인의 치료 행위는 중생을 음욕,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관음의 본래적 직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백의 노인의 치료자적 역할은 넓은 의미에서 구원자의 소임에 포함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치료 대상이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나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는 달리 악인형 인물이며, 치료 부위가 신체가 아닌 본성이라는 점, 백의 노인이 직접 집도하여 감로수 이외에 약물(丹藥)과 물리적 치료법(수술)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백의 노인의 치료자적 역할은 前代 敍事傳統에서 확인되는 관음의 구원자적 소임과는 결을 달리한다.[26] 이 장면에서 백의

25) 甘露는 관음이 항상 지니고 다니며 중생을 정화하는 데 사용하는 淨水로 감로수는 관음이 들고 있는 정병에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효원, 2010 「보살관음의 한국적 변용 과정: 신앙의 영험화를 중심으로」, 『문학 사학 철학』 20, 한국불교사연구소, 72면 각주 57; 최혜경, 2016 「불교신앙에 나타난 물의 상징성」, 『남도민속연구』 33, 남도민속학회, 274면 참고.)

26)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서 관음은 선인형 인물인 유연수와 사정옥, 남채봉이 사활이 걸려 있는 위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을 구조하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다만, 이때 관음은 구호 과정에 직접 나서기보단 사정옥, 남채봉과 과거에 인연이 닿아 있는 여승(묘희, 청원)을 보내 그들을 구호하며, '꿈'을 통해 자신의 대리자 내지 선인형 인물

노인의 치료 행위는, 『三國遺事』에선 나오지 않은 藥王菩薩 내지 藥師如來의 소임과 오히려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藥王菩薩과 藥師如來는 중생의 心身에 발생한 惡을 치유하는 데 큰 관심을 둔 존재이기 때문이다.[27] 이는 『옥루몽』의 관음이 본인의 직능을 넘어서 藥王菩薩 내지 藥師如來의 직능으로까지 역할의 범주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前代 敍事의 傳統이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옥루몽』의 관음은 기본적으로 前代 敍事의 傳統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유형의 보살이 지닌 소임과 직능을 넘나듦으로써 역할 범주의 변이와 확장을 꾀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文殊菩薩

『옥루몽』에서 문수의 역할은 비교적 단출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작중 문수가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선 前代 敍事의 傳統에 충실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듯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관음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상의 변주를 이루어 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문수의 첫 번째 소임은 강남홍에게 온갖 종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文殊菩薩이 지닌 諸佛菩薩의 '지모'란 본래적 성격과 긴밀

의 앞에 현현한다.(김만중, 류준경 역주, 2014 『사씨남정기』, 문학동네, 98-99면, 113-114면, 131면; 이지영 역주, 2010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123-127면.)

27) 아래는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과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에 나온 약왕보살과 약사여래의 大願의 일부로 이를 통해 약왕과 약사가 중생을 치유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의 치료는 몸과 마음을 모두 아우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문은 불교학술원 아카이브에서 인용하였다.
①약왕보살: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 "若我所施, 迴向佛道, 必得成就, 願我兩手, 雨一切藥, 摩洗衆生除一切病. 若有衆生聞我名者, 禮拜我者, 觀我身相者, 當令此等, 皆服甚深妙陁羅尼無閡法藥, 當令此等, 現在身上, 除去諸惡, 無願不從, 我成佛時, 願諸衆生具大乘行."
②약사여래: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願我來世得菩提時, 若諸有情, 諸根不具, 醜陋頑痹, 聾盲瘖瘂, 攣躄背僂, 白癩瘋狂, 種種病苦之所纏逼, 若聞我名, 至心稱念, 皆得端嚴, 衆病除愈. … 願我來世得菩提時, 令諸有情, 出魔羂網, 復有種種邪見之徒, 皆當攝受, 令生正見, 漸令修習諸菩薩行, 乃至菩提. 『藥師經』에서도 약사를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중생까지 구제해 줄 존재로 보고 있다.(정병삼, 2013 「신라 약사신앙의 성격」, 『불교연구』 39, 한국불교연구원, 63-64면 참조.)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前代 敍事의 傳統을 확실하게 계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작중 문수는 『三國遺事』의 文殊菩薩과 마찬가지로, 화를 입어 탈탈국까지 표류해온 강남홍을 제자로 받아들여 그녀에게 온갖 지식을 전수해준다. 다만, 前代 敍事의 傳統과 차이가 있다면, 『옥루몽』의 문수가 강남홍에게 전수해주는 지식은 일체의 집착이나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 즉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강남홍이 사사받은 지식은 술법, 의약, 점술, 천문, 지리, 병법, 검술, 둔갑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으로 강남홍이 남아있는 액운으로부터 본인을 지키고, 양창곡과 재회하여 自國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이고도 도구적인 지식에 가깝다. 따라서 『옥루몽』에서 문수에게 부여한 지식 전수자적 소임은 『三國遺事』에서 문수에게 주어진 지식 전수자적 소임과는 전달되는 지식의 성격과 지식 전수의 목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닌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요하는 점은 문수가 강남홍에게 가르친 과목 가운데 도술의 하나인 둔갑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보살이 도사가 관장하는 지식의 영역까지 전수의 대상으로 포괄하였다는 것은 『옥루몽』의 문수의 역할이 '보살'의 범주까지도 넘어서려 했음을 시사한다.

『옥루몽』의 문수가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 역할상의 커다란 확장을 도모하였음은 문수의 두 번째 역할인 문제 해결자적 소임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작중 문수는 강남홍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녀의 주변에 나타나 시의적절한 해결 방법 내지 도구를 제시해준다. 이 두 번째 역할은 작품에서 문수에게 주어진 가장 주된 역할로 문수가 지닌 지모로서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어떠한 문제 상황의 해결자로 나서 해결 방안 및 도구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한 지혜를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발견되는 문수의 문제 해결자적 소임은, 『三國遺事』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文殊菩薩의 본래적 속성이 확장된 결과로 이해된다.[28] 아래는 서천으로 떠났던 문수가 강남홍과 양창곡이 홍

28) 『옥루몽』의 문수가 보여주는 문제 해결자적 소임은 후술하겠지만 다른 고전소설에서라면 도사나 신선이 맡았을 법한 역할로, 이 작품이 불교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본래적 속성이 확장된 결과로 해석

도국을 토벌하러 가던 도중 위기에 빠지자 이들을 찾아와 문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와 방법을 제시해주는 장면으로, 문수의 두 번째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양창곡은 혼절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였다. 도사가 한동안 살펴보더니, 금단(金丹) 세 개를 홍혼탈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약을 쓰면 쾌차할 것이다."

…"도독의 병은 오장육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오계에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극복할 방법을 가르쳐주소서."

이에 백운도사가 웃으면서 삼구시를 읊는다.

한 줌 흙은 물을 이기고	一抔土克水
만자루의 칼은 쇠를 녹인다.	萬柄火消鐵
반드시 복숭아꽃잎을 입에 물고	必含桃花葉
복숭아꽃 흐르는 물결에 두둥실 떠간다.	泛彼桃花浪
아계의 물을 통쾌하게 마시고	痛飮啞溪水
한밤중에 탕계를 건너가노라.	夜半渡湯溪[29]

할 수 있는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수에게 도사의 정체성과 직능을 부여하였던 『옥루몽』의 작가가 작품 안에서 문수를 관음과는 변별되는 존재로 설정하고 나아가 둘에게 다른 역할을 맡겼다는 사실은, 非불전계 소설로서 종교에 대한 믿음과 종교적 존재의 신성성이 작품에 희석되어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로 유형에 따라 보살이 지닌 역할상의 차이와 그 본래적 성격을 작가가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문제 해결자적 소임이 문수가 본래 지니고 있던 성격과 상통하는 지점이 존재함을 고려하면 『옥루몽』의 문수가 수행하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문수보살의 본래적 속성과 완전히 무관한, 도사의 직능이 전이된 결과로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옥루몽』의 문수에게 주어진 문제 해결자적 소임은 작가가 '문수'를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조력자형 캐릭터의 틀에 맞추어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능의 범주를 文殊菩薩이 지닌 본래적 속성을 의식하고 조정함으로써 산출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싶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중 문수의 문제해결자적 소임을 '文殊菩薩의 본래적 속성이 확장된 결과'로 보았다.

29) 남영로, 김풍기 역주, 앞의 책, 176면.

홍도국을 향해가던 양창곡은 땅과 물에서 뿜어져 나온 독기로 인해 생사를 오가게 된다. 이때 문수가 강남홍을 찾아와 양창곡을 소생시킬 금단 3개를 주고, 강남홍의 간청에 따라 오계를 무사히 지나갈 방안도 삼구시로 알려준다. 떠나기 직전 문수는 강남홍에게 홍도왕을 돕고 있는 여우 정령을 물리칠 때 요긴하게 쓰일 물건(108 보리주)을 건네준다. 이 장면에서 문수는 주동인물들이 부딪친 문제 상황의 해결자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자면 여기서의 문수는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라기보다 주동인물들이 당면한 과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도구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는 간접적 해결자에 가깝다. 작중 인물들이 자신이 봉착한 문제 상황을 완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선 문수에게서 받은 도구 또는 방안을 활용하여 별도의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수가 문제 상황의 해결자로 나서는 다른 장면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작품 속 문수의 두 번째 소임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문제 해결의 방법 및 도구의 제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수의 소임은 前代 敍事 傳統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백운'도사'라는 작중 문수의 이칭에 걸맞게 여타 고전소설이었다면 도사나 신선이 맡을 법한 역할로 주목된다. 더욱이 작품에서 문수를 대체할 만한 다른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옥루몽』의 문수가 보살과 도사 사이의 역할 경계를 넘어 도사의 역할을 끌어옴으로써 보살의 외연을 넓히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옥루몽』의 문수는, 文殊菩薩이 지닌 本來的 性格에 기반하여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前代 敍事 傳統을 受容하는 한편 도사의 직능을 끌어와 文殊菩薩의 지모로서의 屬性에 조합시킴으로써 역할상의 변화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해보자면, 『옥루몽』의 두 보살은 각자의 이름에 따른 국한된 역할만 수행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 다른 보살의 소임으로 분류되었던 역할을 맡는가 하면 보살의 범주조차 뛰어넘어 여타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도사에게 주어졌던 역할까지 두루 포섭하며 서사 내에서 폭넓게 기능한다. 다만, 두 보살의 역할이 그들의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또 보살이라는 정체성에도 속박되지 않는 까닭에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에 관한 인식은 소박한

수준의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작중 관음과 문수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계승하는 면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옥루몽』의 두 보살이 기본적으로 前代 敍事의 傳統과 기존의 종교적 서사물에서 보살에게 부여하였던 역할 범주를 의식하고 변이 및 확장된 소임을 맡게 되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리하자면, 『옥루몽』 속 관음과 문수의 역할은 表面的으론 諸佛菩薩 및 道士 사이의 경계를 파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본래 가진 역할은 물론이고, 前代 敍事의 傳統에 기초하여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다른 소설작품들과는 변별되는 『옥루몽』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 『옥루몽』에서 이와 같이 前代 敍事 傳統에서 형성되었던 보살 간의 역할 경계를 흐리고, 도사의 역할 범주를 넘나들면서까지 보살을 작품의 주요 조력자로 호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옥루몽』에서 확인되는 보살의 역할 변화가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까.

4. 『옥루몽』에 나타난 보살의 역할 변화에 담긴 의미

앞서 3장에서는 『옥루몽』의 관음과 문수가 작품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그것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변화시킨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옥루몽』의 두 보살에게서 확인되는 역할상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옥루몽』에서 다른 작품에서와는 변별되는 특징을 지닌 보살 캐릭터를 조력자로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옥루몽』은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가 습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불전계 소설이 아닌 만큼 『옥루몽』 속 보살의 권위는 前代 敍事의 傳統 안에서 보살이 지녔던 권위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옥루몽』이 작품의 주요 조력자로 보살을 설정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루몽』은 신선이 아닌 보살을 작품의 조력자로 호명하고, 보살에게 다시 도사의 직능을 부여하는 번거로운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작

중 문수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강남홍과 사제 관계를 맺은 문수는 첫 만남에서 본인을 백운도사로 소개한다. 작중 문수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 본질은 보살에 놓여있지만 백운도사란 별칭에 걸맞게 지상계에서 도사를 자처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불도를 제외한 온갖 지식과 도술을 가르치며 단약을 써서 주동인물을 회생시키는 이중적 정체성의 소유자로 형상화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불교적 요소와 도교적 요소가 습합된 작품에서 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이미 호명해 놓고, 그를 다시 보살이면서도 도사라는 이중적 성격의 존재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옥루몽』에서 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끌어들인 이유와도 연관된 것으로, 후자를 온전히 해명하기 위해선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옥루몽』이 보살을 작품의 주요 조력자로 소환해 놓고 그에게 다시 도사의 외피와 직능을 부여해 이중적 정체성을 소유한 캐릭터로 재탄생시킨 이유는 기존 캐릭터의 리뉴얼(renewal)을 통하여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고전소설 작가에게 새로운 캐릭터의 창안은 독자를 작품으로 유인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에 분명하지만, 새로운 캐릭터의 존재는 독자에게 생소함을 느끼게 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작가의 입장에선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자극할 방안을 마련해야 했을 것인데, 『옥루몽』의 백운도사는 바로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이해된다. 고전소설에서 보살과 도사는 주로 조력자로서 요청된다는 점에선 유사하지만 주동인물 앞에 등장하는 방식이나 조력의 형태, 직능의 범주 등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유사하면서도 다른 두 존재를, 『옥루몽』의 작가는 보살이 지닌 화현의 屬性을 활용해 하나로 접합시킴으로써 기존의 고전소설 캐릭터에 익숙한 독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옥루몽』에 이렇듯 보살이면서 동시에 도사인 캐릭터가 생성되어, 작품에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형태로 모습을 변화시켜 나타난다고 보는 독자의 인식이 놓여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살은 일반적으로 화현의 의도, 중생의 성격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중생의 앞에 등장한다. 보살이 지닌 화현의 속성에 대한 인식은 불교가 國敎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이전 시기부터 조선후기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을 『옥루몽』의 문수가 이미 내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옥루몽』의 문수가 보살 간의 역할 경계를 넘나드는 수준을 넘어서 도사의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었던 데는 보살이 도사로도 화현할 수 있다는 독자의 인식이 놓여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옥루몽』이 창작·향유되던 시기와는 간극이 있지만 『소현성록』에서 여승의 형상을 하고 소부인물들의 관상을 봐주던 관음이 정체를 물어보는 소부 여성들에게 본인을 '운수동에 사는 도사'라고 소개한 것이나 『서포만필』에서 불서에 관음이 32화신으로 나타나 말속을 교화한다고 하였으니 불교 입장에선 큰 보살이 도사나 유자의 몸으로 현신하여 중토를 제도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은 보살이 도사의 외피를 입는 일이 조선후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의미한다.[30] 요컨대, 『옥루몽』에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보살 캐릭터가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사를 보살화현의 가능태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인 『옥루몽』에서 보살을 작품의 핵심 조력자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일차적 이유는 전술하였듯, 보살이 지닌 화현의 속성이 새로움을 첨가하기에 용이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문수도 관음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이 보살에 놓여있음을 고려하면 화현의 속성만으론 『옥루몽』이 도사가 아닌 보살을 조력자로 선택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옥루몽』의 작가가 작품에 두 명의 보살을 출현시키고, 그들에게 주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한

30) 김만중, 심경호 옮김, 2010 『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20면. 『소현성록』의 관음은 본인을 '도사'라고 가칭하지만 실제 서사에서 단약을 사용하거나 신통력을 발휘해 위기에 처한 인물을 구원한다든지, 신물을 전달하고 도술을 전수하여 주동인물의 영웅적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사가 맡을 법한 일을 수행하지는 않는다.(최수연, 허순우, 정선희, 조혜란 역주, 앞의 책, 67면.)

이유는 불교에 대한 조선후기 당대인들의 관심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시기 國敎로 숭앙받던 불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선 억불정책의 시행으로 교세가 위축되고, 권위를 잃는다. 그러나 승려들이 임·병 양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면서 17세기 이후 불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에 변화가 생겼으며, 불교 정책에 관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1] 이러한 흐름 안에서 승려의 문집, 불전, 불교의식집 등의 간행과 고승비 건립이 이어졌고, 승려와 사대부 간의 교유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32] 불교계에서도 유학자들의 배척을 피하고자 유교와의 유사성을 부각한 권선서를 편찬해내기도 하였다.[33] 그 결과 17세기 후반 서울, 경기 지역의 서인계 인물들 가운데 불교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이 적잖이 나타나며, 19세기 후반에도 유교와 불교의 근본이 다르지 않다는 친불교적 입장을 견지한 노론계 인사들이 다수 나온다.[34] 이러한 사상계의 동향은 조선후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하나의 논의 대상이 될 정도로 불교에 대한 당대인의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선후기 불교에 관한 관심이 특정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었음은 불교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견이 문인들의 시문집뿐 아니라 고전소설을 통하여서도 산출되었던 것에서 확인 가능하다. 불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배척해야 할 것으로 그린 『여와전』이나 대립되는 불교관을 그대로 노출한 『소현성록』이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작품으로부터 불교를 향한 당대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옥루몽』에서 보살을 조력자로 끌어온 주된

31) 이승수, 2002 「18세기 전반 사대부 불교 이해」, 『불교학보』 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46면; 손성필, 2015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시론」, 『불교학연구』 45, 불교학연구회, 288면 참고.

32) 이승수, 앞의 논문, 247면; 손성필, 앞의 논문 281면 참고.

33) 이기대, 2010 『19세기 조선의 소설가와 한문장편소설』, 집문당, 208면.

34) 이주영, 2011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 『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181-182면; 조성산, 1999 「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 『한국사상사학』 13, 한국사상사학회, 331면; 이기대, 앞의 책, 209-210면 참고.

이유 역시 불교에 대한 작가와 당대인의 관심에서 연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옥루몽』이 관음과 문수를 작품의 중심 조력자로 끌어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서사 내에 문수가 강남홍에게 허황된 술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는 후세의 승려와 도사를 비판하면서도 유불도 삼교가 마음을 수양해 외물에 의하여 바뀌지 않는 성질을 지녔다는 점에서는 한가지라고 말하는 장면을 넣거나 보조국사가 『妙法蓮華經』을 대중에게 강론하던 중 강남홍과 불법의 요체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을 삽입한 것은 이를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요컨대, 『옥루몽』은 불교에 대한 작가와 당대인의 관심에 바탕을 두고 보살을 작품에 호명하되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대중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살에게 이중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를 대체 불가한 조력자의 위치에 올려놓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옥루몽』의 문수는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중적 정체성을 획득함에 따라 오히려 '보살'이 지닌 특수성을 일부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문수처럼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옥루몽』의 관음 역시 前代 敍事 傳統의 확장 및 변이를, 보살의 유형별 역할 경계를 넘나들며 꾀하고 있어 분별없고 소박해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한 듯한 양상을 띤다. 그렇다면 『옥루몽』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보살의 역할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조선후기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불교의 지위와 권위가 전시대에서 크게 달라졌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라와 고려 시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었던 불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선 권위주의적 성격을 잃게 된다. 그에 따라 소설이라는 장르 안에서 불교와 불교의 신적 존재들은 신성성을 잃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옥루몽』의 관음과 문수는 前代 敍事의 傳統에서와는 달리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으며, 맡은 바 소임 역시 조력자형 인물에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옥루몽』의 두 보살이 종교적 경계뿐 아니라 유형별 역할 범주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前代 敍事의 傳統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관음, 문수, 지장, 보현, 정취 등이 각각 개별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前代와 달리 불교의 교세가 위축되면서 조선후기엔 보살의 세밀한 유형 구분이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에 따라 서사 내부에서도 보살 간의 역

할 경계가 무너지고 보살이 조력자형 캐릭터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요약하자면, 『옥루몽』에서 확인되는 보살의 역할 변화는 불교의 지위가 바뀜에 따라 서사문학 안에서 보살의 성격도 신성한 존재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소설적 도구'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앞서 살펴보았듯 『옥루몽』은 관음과 문수를 유형별 역할 범주 및 종교적 경계를 무분별하게 뛰어넘는 존재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前代 敍事의 傳統과 보살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에서와는 구별되는 조력자를 만들어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된다.[35]

5. 결론

본고는 보살의 역할이 서사물에 따라, 보살의 유형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지

35) 3장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옥루몽』은 보살의 유형별 역할 범주를 넘나드는가 하면 보살에게 도사의 직능을 부여함으로써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어느 정도 의식한 상태에서 관음과 문수의 역할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중 관음과 문수의 소임이 고전소설에서 조력자형 캐릭터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역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옥루몽』의 두 보살은 표면적으론 도사나 신선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조력자형 캐릭터의 하나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옥루몽』의 관음과 문수를 다른 소설의 조력자형 캐릭터와는 구별되는 존재로 판단한 이유는 작가가 두 보살에게 도사의 직능을 주고, 나아가 도사의 정체성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보살'의 속성 및 정체성을 끝내 버리지는 않아서이다. 만약 『옥루몽』의 작가가 두 보살을 여타 소설에 등장하는 일반적인 조력자형 캐릭터로서만 인식하였다면 관음과 문수에게 각기 다른 소임을 맡긴다거나 문수를 보살이면서 도사이기도 한 이중적 정체성의 소유자로 그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번거로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문수를 도사나 신선으로 대체하거나 『양풍운전』의 천황보살처럼 기존에 존재하는 보살의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역할의 범주를 이름에 구애받지 않고 설정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옥루몽』은 前代 敍事의 傳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음과 문수보살의 역할 범주를 재조정하여 둘을 여타 소설의 조력자형 캐릭터와는 변별되는 존재로 만듦으로써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김기동 역주, 1984 『양산백전, 양풍전, 반씨전, 낙성비룡』, 서문당, 62-69면, 75-76면.)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후기에 창작된 非불전계 소설, 『옥루몽』 속 보살의 역할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얼마만큼 계승 또는 변주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前代 敍事의 傳統으로서 『三國遺事』 소재 보살화현 설화에 형상화된 보살의 유형과 그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 3장에서는 『옥루몽』에 나타나는 관음과 문수보살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것이 前代 敍事의 傳統을 어떻게 계승 및 변주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옥루몽』에서 확인되는 보살의 역할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 작품이 보살을 주요 조력자로 호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옥루몽』은 前代 敍事의 傳統을 일부는 계승하면서도 보살의 유형별 역할 범주와 종교적 경계를 넘어섬으로써 변주를 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옥루몽』의 보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다양한 역할 경계를 파괴하여 보살에 관한 소박한 수준의 인식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작중 백운도사라 불리는 문수보살과 같이 보살이면서 동시에 도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었다. 『옥루몽』의 보살에게서 확인되는 이러한 역할 변화와 독특한 조력자형 캐릭터의 형성은 작가가 보살에 대한 당대인의 관심을 바탕으로 보살이 지닌 화현의 속성이 캐릭터에 적절한 수준의 새로움을 부가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보살 캐릭터를 리뉴얼하여 독자의 흥미를 제고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지위가 변화하면서 보살 역시 서사문학 안에서 신성성을 상실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역할 범주의 변이 및 확장을 꾀하였던 『옥루몽』의 보살은 도리어 분별없고 소박한 수준의 소임을 부여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소설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살이 흥미를 유발하는 소설적 도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옥루몽』의 두 보살이 단지 유형별 역할의 범주와 종교적 역할 경계를 분별없이 뛰어넘는 존재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前代 敍事의 傳統과 보살의 기본적 속성에 근거해 재창조된 '보살 캐릭터'임을 고려하면, 『옥루몽』의 작가는 관음과 문수를 통해 여타 소설과는 변별되는 조력자를 만들어 차별화를 추구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는 『옥루몽』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삼아 보살의 역할이 유형별로 前代 敍事

의 傳統을 얼마만큼 이어받았는지를 살폈는데, 『옥루몽』에 등장하는 보살과 그의 역할이 지닌 독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후기에 창작 · 유통되었던 非불전계 소설 및 불전계 소설을 모두 포괄하여 이들 소설에는 어떤 보살이 등장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소임은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지점으로 생각된다.

논문투고일(2021. 5. 14),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11)

참고문헌

1. 자료

김만중, 류준경 역주, 2014『사씨남정기』, 문학동네.
최수연, 허순우, 정선희, 조혜란 역주, 2010『소현성록 4』, 소명출판.
김기동 역주, 1984『양산백전, 양풍전, 반씨전, 낙성비룡』, 서문당.
남영로, 김풍기 역주, 2006『옥루몽』, 그린비.
이지영 역주, 2010『창선감의록』, 문학동네.
일연, 최광식 · 박대제 역주, 2014『삼국유사 2』, 고려대학교 출판부.
일연, 신태영 옮김, 2012『원문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한국인문고전연구소.
『大乘大集地藏十輪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彌勒菩薩所問本願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佛說文殊師利般涅槃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불교학술원 아카이브).

2. 연구논저

김만중, 심경호 옮김, 2010『서포만필 하』, 문학동네.
이기대, 2010『19세기 조선의 소설가와 한문장편소설』, 집문당.
이운허, 2005『묘법연화경』, 동국역경원.

김용덕, 2011「문수보살 신앙과 영험설화의 전승양상」,『한국민속학』54, 한국민속학회.
손성필, 2015「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시론」,『불교학연구』45, 불교학연구회.
이명현, 2013「『옥루몽』에 나타난 초월적 요소의 성격과 대중성」,『어문론집』53, 중앙어문학회.
이승수, 2002「18세기 전반 사대부 불교 이해」,『불교학보』3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주영, 2011「『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국문학연구』23, 국문학회.

이효원, 2010「보살관음의 한국적 변용과정: 신앙의 영험화를 중심으로」,『문학 사학 철학』20, 한국불교사연구소.
정병삼, 2013「신라 약사신앙의 성격」,『불교연구』39, 한국불교연구원.
조성산, 1999「19세기 전반 노론계 불교인식의 정치적 성격」,『한국사상사학』13, 한국사상사학회.
최종운, 1995「『옥루몽』에 나타난 도교사상」,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경, 2016「불교신앙에 나타난 물의 상징성」,『남도민속연구』33, 남도민속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Bodhisattva's Roles and the Meaning of the Role Changes in *Okrumong*: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and Variation of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Kang Nara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odhisattva's roles and the meaning of the role changes in *Okrumong*, from the perspective of succession and variation of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To specifically discus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oles of Avalokitesvara and Manjusri in *Okrumong*, Chapter 2 examined what the role of bodhisattva was like in the narratives of the previous period. Judging that *Samgukyusa* has sufficient representativeness as a tradition of the previous narrative,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bodhisattva in the story of the bodhisattva in *Samgukyusa* by type. Avalokitesvara, Manjusri, Maitreya, Ksitigarbha, Samantabhadra appear in *Samgukyusa*, and they are given a different role in the narrative by their intrinsic character. It appears that the bodhisattvas in *Samgukyusa* formed the rol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type and did not usually cross their duties.

Chapter 3 analyzed Avalokitesvara's and Manjusri's roles in *Okrumong* based on the role categories of Bodhisattva in the previous period. *Okrumong*'s two bodhisattvas did not play a limited role according to their names. They took on duties that had been categorized as different bodhisattvas' roles in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and also crossed religious role boundaries. They took on the duties categorized as different bodhisattvas' roles in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and crossed religious role boundaries. As a result, two

* Ph.D. Candidat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bodhisattvas in *Okrumong* seemed to destroy the boundaries of various roles ostensibly. However, in reality, the two bodhisattvas were transforming and expanding their external boundaries based on their original attributes and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In *Okrumong*, a non-Buddhist novel created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reason for choosing the bodhisattva as a core helper, and further attempting to expand its role was to increase readers' interest and secure popularity safely in a situation where the contemporary people had enough interest in Buddhism. In this process, the role of Bodhisattva in *Okrumong* changed in a seemingly senseless and simple way, meaning that the character of Bodhisattva in epic literature changed from sacred to a tool for fiction that arouses interest. However, the fact that *Okrumong*'s two bodhisattvas were not indiscriminately transcended the boundaries of their roles, but were recreat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bodhisattvas' original properties and the previous narrative tradition, is presumed to have differentiated *Okrumong* from other novels.

Key words : Bodhisattva, Avalokitesvara, Manjusri, *Samgukyusa*, *Okrumong*, role, renewal, tool for fiction